

# 고부가 메모리·선박이 버틴 수출 美 관세에도 10월 실적 ‘역대급’

산업부 “10월 수출 595억달러”  
전년比 3.6%▲… 5개월째 플러스  
반도체·선박, 사상최대 수출 건인  
무역흑자 60억달러 17개월 연속  
“한미 관세합의로 불확실성 완화”

10월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의 쌍끌이 호조에 힘입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 관세 부담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주춤했지만,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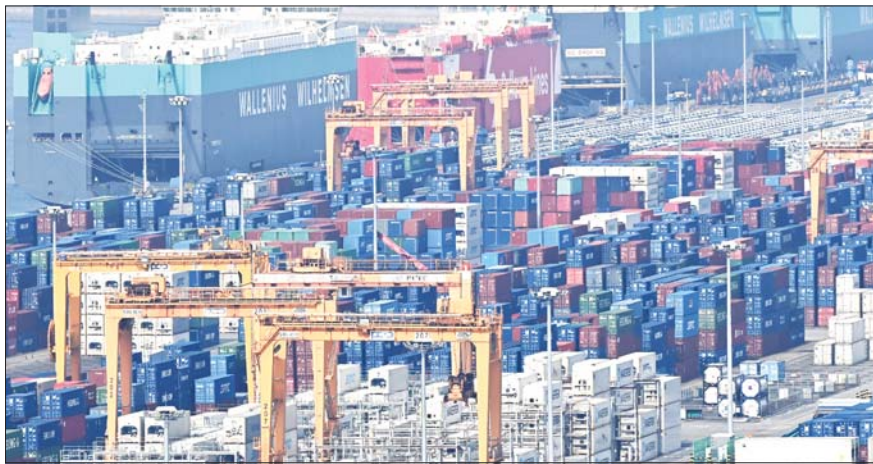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 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0억 6000만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달 주석 연휴로 조업일이 1년 전보다 이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9억 8000만달러로 14.0%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주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떠받친 모습이다.

10월 수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57억 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4% 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6월 이후 월평균 150억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버용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고가가격은 10월 기준 DDR5 8Gb가 7.0달러, 16Gb는 8.7달러로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선박 수출도 46억 9000만달러로 131.2% 급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남미 해역으로의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석유제품(38억 3000만달러, +12.7%) 역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시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10.5%),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은 미 관세 영향으로 부진했다.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일부 산업용품 고율관세 조치가 본격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남미와 CIS(독립국가연합) 2곳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99.0% 급증한 47억 1000만달러로, 전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42억 2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브라질·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인도가 집중된 영향이다. 최근 중남미 각국이 인프라 확충과 해양 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중공업 제품의 입지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CIS(13억 4000만달러, +34.4%)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카자흐스탄 지역으로의 자동차부품·건설장비 수출이 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 1000만달러로,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기계류 등 관세 부과 품목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대중 수출은 115억 5000만달러로 소

폭 감소(-5.1%)했지만, 두 달 연속 110억달러를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회복과 중국 내 스마트폰·가전 수요 반등이 뒷받침됐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부진으로 6.5% 감소(94억달러)에 그쳤다.

EU(51억 9000만달러, -2.0%), 인도(14억 9000만달러, -1.2%), 중동(15억달러, -1.3%)은 보합세를 보였고, 9대 주요지역 외 대만으로의 수출은 HBM 중심 반도체 호조세로 10월 중 최대실적인 51억 5000만달러(+46.0%)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는 60억 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5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518억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그간 우리 수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 불확실성이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양국의 제조업 부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발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KIAT·KOSTI, 수출제재 리스크 공동 대응

중견기업 전략물자 관리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중견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와 수출제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KIAT는 지난달 31일 서울 조선펠리스 호텔에서 KOSTI와 ‘전략물자 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일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수출입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전략물자·수출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월드클래스 세르파’를 통해 컨설팅과 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기 위

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월드클래스 세르파는 2021년 출범한 범부처 기업지원 체계다. 기업들의 수출·금융·법률·인력·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담당하며 현재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협약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이 23번째 참여기관으로 합류했다.

KOSTI는 전략물자 및 특정 국가 대상 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출관리 방안과 제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략물자 관리 대응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KOSTI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협 “새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심”

‘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농협중앙회가 ‘한국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새농민회는 1965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수가 현재 1만 2000여 명에 달한다.

2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60년간의 새농민회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향한 비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고 농협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새농민회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뿌리를 지켜온 역사였다”며 “앞으로의 60년도 새농민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새농민정신과 함께 이어온 발자취를 사진과 기록으로 전시한 전시관과 포토존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생산품 홍보관도 함께 운영됐다. 기념식에서는 새농민회 역사와 비전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또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과 농협중앙회 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한국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농협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하세요”

노동부, 부정수급 집중신고 돌입  
12월 2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신고 땐 형사처벌·추징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 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남부발전, 소상공인 지원 유공 장관상 수상

K-글로벌 프로젝트로 판로 개척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포상식이다.

남부발전은 ‘K-소상공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부산외국어대학교 등과 협업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왔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매출채권보험’ 지원 제도를 운용하며 거래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변희정 남부발전 상생협력실장은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소상공인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